

문화

“불교 알리는 신명난 무대로 기쁨 드리고 싶어요”

현대불교음악가 아운

“전국 곳곳에 공양주 보살님들이 모두 제 어머니예요. 저에게 그분들은 부모님이자 최고의 부처님이죠. 그 어머니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요. 그분들이 즐거우면 저도 즐겁죠.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보다 저한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저 제가 선 무대에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자가수 아운(37)은 자신을 현대불교 음악가라고 칭한다. 찬불가를 현대화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자 하는 아운이 스스로 자신에게 부친 이름이다. 오랜 시간 산사에서 노래를 했지만 지난해야 첫 찬불 앨범을 낸 아운. 그녀는 자신이 서는 무대가 때면 흥겨웠으면 한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불교계의 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스님처럼 포교를 할 수는 없으니 불자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 분위기를 돋우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불자들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너무나 흥이 나요. 유명한 가수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 욕심도 없어요. 예술을 하거나 불교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죠. 그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불교와 전통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일에 공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보살님들이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동을 받는다는 아운은 그들을 위한 콘서트를 마련한다. 4월 5일 오전 11시 정각원에서 열리는 ‘힐링과 현대불교 음악 콘서트’다. 이미 봉은사, 조계사, 비구니회관 등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는 아운은 ‘부처님 이야기 그림과 함께하는 산술바람’이라는 부제를 붙여 공연을 진행한다.

“저는 전국의 불자들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보살님 모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공연은 보살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에 꽃그림은 물



현대불교음악가 아운은 찬불가를 현대화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불교와 전통 알리며 노래 우수한 불교공연 제작 발원 4월 5일 정각원서 공연도

론 〈부모은중경〉〈법화경〉 등의 법문 구절을 삽입한 영상을 바탕으로 제가 노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공연은 앞으로 대구 부산 등에서 순회 공연을 가질 겁니다.”

“늘 불교 공연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고민하던 그녀는 현재 동국대문화예술대학원에 입학해 공연예술경영을 공부하고 있기도 하다. “공연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관중들이 반응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반응이 없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공연예술학과에 입학해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들구름악단과 함께 조계사 공연을 기획해보기도 했다. “스튜디오가 들어간 공연이었어요. 제가 의자 배치에서 조명 영상을 담당한 것은 물론 전단지 작업까지 했죠. 주지스님께 마당만 빌려 달라고 해 공연할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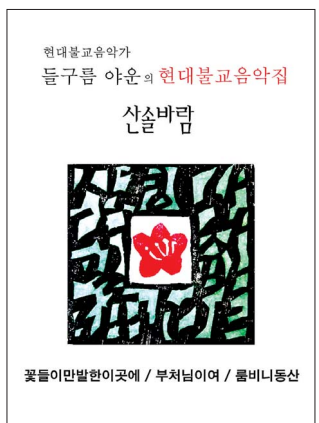
어머니는 그 이쁨만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아운은 한국 지역복지봉사회에서 17년 동안 봉사를 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17살 때 기타를 배우면서 수와 진의 안상수 선배님과 함께 심장병어린이 돕기를 했어요. 그때 노래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후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가입해 회원들과 함께 무의탁 어르신들의 목욕, 이발, 칠순잔치, 도시락 배달 봉사 등 다양한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계사 어머니날 기념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어르신들을 보면 사계절 잘 이겨낸 동백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저 감동적이에요.”

슬픈 가족사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던 그녀는 절을 떠돌며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 가는 곳마다 법당에서 절기도를 올렸고 공간에 가서 운력하며 공양주 보살님들을 어머니 삼았다.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았어요. ‘너의 고통이 너를 지나갈 것이요. 마음이 너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때 받은 영감으로 탄생한 노래가 바로 ‘부처님이야’라는 곡이에요. 저는 늘 부처님을 닮고 싶어요. 마음의 온화한 미소, 자비로운 성품을 제 얼굴 속에 담고 싶어요.” 1661-0607

정혜숙 기자 bwjsh@tyunbul.com



삼국암 너럭바위 위에서 부처님말씀을 노래로 전하는 아운의 공연 모습.



아운 찬불가 1집 '산술바람'

뒷날 복된 땅 어디서 찾으랴

결사정신 이어 온 승보종찰

열여섯 명의 국사(國師)를 배출한 승보종찰(僧寶宗刹) 송광사의 원연은 신라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광사사적비〉와 〈보조국사비명〉 등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신라 말 혜린선사(慧麟禪師)가 터를 잡고 길상사(吉祥寺)를 창건하고 산 이름을 송광산이라 했다. 이후 길상사는 스러져 폐허가 되다시피 했었다. 고려 말 보조국사 지눌(智訥 1158~1210) 스님이 정혜결사(定慧結社)를 결성하여 길상사를 수행 도량으로 삼으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고려 희종으로부터 절 이름을 ‘수선사(修禪社) 산 이름을 ‘조계산(曹溪山)이라는 친필 사액을 받았다.

송광사는 퇴폐해 가는 고려 불교에 새로운 수행의 바람을 일으키며 정혜결사의 정신을 이어 오는 동안 우뚝한 절승들을 배출하고 시대의 고난을 극복하는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는 동안 절 이름은 길상사, 수선사, 송광사로 바뀌었고, 산 이름도 송광산, 길상산, 조계산으로 이어져 왔다. 산 이름과 절 이름이 모두 깊은 불심과 수행 천혜의 자연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송광사의 역사는 그 도량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대를 이어 이루어 온 찬란한 보탑(寶塔)이다. 스님들의 정신이 정혜결사의 그 견고한 의지를 버리지 않아 대를 이어 국사를 배출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수행가풍을 떨쳐 온 것이다. 16국사를 비롯한 많은 고승들과 역사가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물소리 바람 소리를 벗 삼아 촌음을 아껴가며 정진했을 스님들의 공력이 오늘의 송광사를 이루어 온 것이다.

극락정토 이루는 복된 도량

긴 역사만큼이나 송광사를 읊은 시도 많고 도량을 순례한 명인들도 많다. 선비들이 송광사의 스님들과 시문을 나누고 도담(道談)을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려 말의 충신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은 송광사는 물론 송광사의 스님과 관련된 시를 남겼다.

동부심심격세진(洞府深深隔世塵)
산승무사해담진(山僧無事解談眞)
타년복지심하처(他年福祉尋何處)
백석정계입몽반(白石淸溪入夢頻)

골이 깊고 깊어 세속 티끌 끊겼는데
스님은 일 없어도 참 도를 말할 줄 아네.
뒷날 복된 땅 어디서 찾으랴
흰 돌 맑은 물 꿈속에서 저주 버리.
-이색 '송광사(재승주)' (묵은시고)

이색의 이 시는 깊은 산골의 그윽한 도량을 고사(故事)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스님은 일 없어도 참 도를 말할 줄 아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⑬ 이색과 송광사 ⑭



송광사 경내로 들어가는 능허교와 계류. 능허교 뒤의 건물이 침계루다.

라는 두 번째 구절의 배경이 되는 고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소개 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 승려 총화(仲燾)이 처음에 남성아원(南省亞元)으로서 몸을 빼어 송광사에 가서 중이 되어 도를 닦았다. 최이(崔怡)가 지주사(知奏事)가 되었을 제 편지를 써서 차(茶)와 향과 〈능엄경(楞嚴經)〉을 보냈다. 사자(使者)가 돌아갈 제 편지 답장을 써 달라 하니, 대사는 말하기를, “내 이미 세상과 인연을 끊었는데 무엇 허러 편지를 내어한단 말인가.” 했다. 그러자 사자는 억지로 재촉하고 또 시를 지어 주니, 대사는 곧 여기에 차운(次韻)하기를, “수적인 학은 고요히 소나무 위 달빛 속에 앉았고, 한가한 구름은 가볍게 고개 위의 바람을 따라 흘러가네. 이 가운데 이 면목(面目) 천리가 같으니, 어찌 다시 새로 이 말을 만들어 통하리.” 하고, 끝내 편지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 기사에서 남성은 예조를 뜻하고 아원은 과거에 두 번째로 합격했다는 말이다. 즉 총화 스님은 원래 관료였는데 출가하여 송광사에서 수행을 했던 것이다. 친분이 있는 관료 최이가 선물을 보내고 답장을 요구했으나 스님은 출가자로서 속세 지인과의 사귀기를 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 준다. 이색은 총화 스님의 단호한 의지로 성불하여 복된 땅의 주인이 될 것임을 읊으면서 수선결사 도량인 송광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다.

뒷날의 복된 땅이란 극락정토일 것이다. 일체중생이 해탈 성불하여 더 이상 윤

회의 고통이 없는 곳이 불교의 궁극이다. 흰 돌과 맑은 물이 바로 극락정토의 모습이니, 꿈에 자주 보인다는 것은 왕생극락 내지는 현생정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희망의 표현인 것이다.

파운일상침계루(破雲一上枕溪樓)
편육인간만사후(便欲人間萬事休)
반일등림죽귀거(半日登臨即歸巨)
명조상마중회두(明朝上馬重回頭)

구름 헤치고 단면에 침계루 오르니
문득 인간만사가 허망함을 알겠네.
반나절을 올랐다가 곧 돌아가지만
내일 아침 말에 오르면 거듭 돌아보리라.
-이색 '송광사 침계루' (묵은시고)

이 시의 경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신증’으로 소개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없었는데 추가로 소개한 것이다. 송광사 침계루는 정면 7칸의 큰 누각으로 ‘사자루’라고도 하는데 강당 역할을 하는 건물이다. 사자후를 듣는 누각이란 의미다.

침계루란 글자 그대로 계곡을 베개 삼은 누각을 말한다. 계곡에 바짝 붙여 지은 누각이다. 해남 대흥사에도 침계루가 있는데 역시 계류에 바짝 붙어 있다.

이색은 송광사 침계루에 잠시 올랐다가면서도 그 풍경 속에서 무상의 도리를 엿보았다. 그리하여 속세로 다시 돌아가면서도 거듭 되돌아 볼 것이라 말한다. 절경 속 많은 고승을 배출한 유구한 역사가 입증하듯이 송광사는 잠시 다녀가는 감회 예조차 무설설(無說說)의 법문이 울려 퍼지는 것 아니겠는가?

티베트의 국민 여가수이자 인간 문화재와 같은 존재, 겐상 추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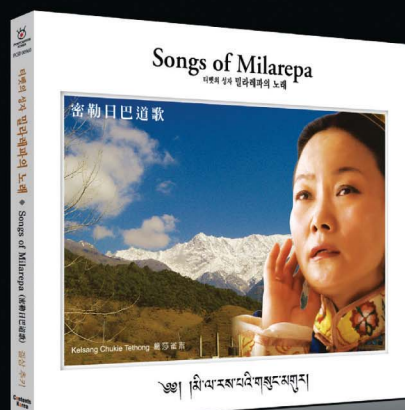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진언과 전통민속음악을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달라이 라마께서 ‘타라(Tara) 보살이 현신한 듯한 천상의 목소리’라고 극찬!



티베트의 진언 (A Woman's Spiritual Chants) 앨범

(ICD디지텍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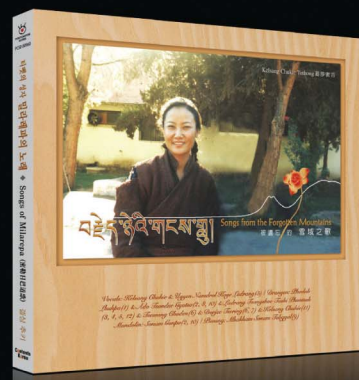
제 20회 대만 <금곡장> 최우수 가수상에 저명한 겐상 추키의 명반!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진언들과 경전을 찬양한다.



티베트의 성자 밀라레파의 노래 (Songs of Milarepa) 앨범

(ICD디지텍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티베트의 최고 성자 <밀라레파>의 제단음이 담긴 <실만송>을 노래한 역작! 이 노래들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실역지가 (Songs from Forgotten Mountains) 앨범

(ICD디지텍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제 17회 대만 <금곡장> 최고 민속음악 앨범상 수상작! 달라이 라마의 70번째 생신을 감축하며 헌정하는 앨범이다.



화개시절 (Where The Heart Blossoms) 앨범

(ICD디지텍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겐상 추키 앨범중 최고로 손꼽히는 대표작이자 베스트 셀러앨범! 최고 인기곡 <다와 물마>와 <삼로>가 수록되어 있는 명반이다.



도모화성 (Voice from Tara) 앨범

(ICD디지텍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현재 제 14대 달라이 라마께서 손수 앨범 제목을 지어준 각별한 의미와 축원이 담긴 대명 앨범! 겐상 추키만의 천황적인 티베트 전통장엄을 느낄 수 있다.

◆ 구입처 :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